

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항리보솜항체(antiribosomal-P)의 출현빈도와 임상양상에 대한 고찰

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및 임상병리학 교실†
이성원*, 김경희†, 한진영†, 정원태

목적: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(SLE)는 세포핵과 세포질에 대한 순환항체를 특징으로 하는 전신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이들 자가항체 중 일부는 SLE의 혈청표식자로 사용되기도 한다. 이 중 항리보솜항체(antiribosomal P antibody)는 SLE의 혈청표식자로 루푸스 정신신경학적 증세와 관련성이 있으며 최근에는 루푸스 신염 및 간염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. 그러나 SLE에서 antiribosomal P antibody에 대한 빈도는 다양하게 알려져 있어 5%에서 20% 정도의 보고에서부터 보고자에 따라 40-50%까지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. 이에 연구자들은 SLE 환자에서 antiribosomal P antibody의 빈도와 임상적 양상과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1983년 ACR의 SLE 진단기준에 합당한 SLE 환자로 본원 류마티스내과에서 경과 관찰 중인 99명을 대상으로 혈청을 채취하여 ELISA 검사법으로 antiribosomal-P를 검출하였다.

결과:

- 1) 대상 환자군의 연령은 15세부터 78세의 범위로 평균 37.37 ± 1.35 세였다. 성별로는 남자가 13명(13.1%) 여자가 86명(86.9%)이었다. 발병에서부터 내원까지 기간은 최대 6.5년이고 평균 23.66 ± 3.56 개월이었다.
 - 2) anti-P가 양성인 환자는 24명(24.2%)이었고 anti-P가 양성인 환자 중 남자는 3명(12.5%), 여자는 21명(87.5%)이었다. 전체 환자들에서 anti-P의 역가는 최소 1.80에서 최대 226.0까지의 범위를 보였고, 평균 역가는 34.97 ± 6.30 이었다. anti-P와 anti-ds-DNA의 상관계수는 0.205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(Spearman's rho, $p=0.042$), C₃와의 상관계수는 -0.235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(Spearman's rho, $p=0.024$). anti-P와 SLE disease activity index(SLEDAI) 사이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.
 - 3) anti-P가 양성인 환자들에서 관찰된 주요 소견들은 신장염의 소견, 혈액학적 이상소견, 관절염, 피부병변, CNS병변, 급성심근경색증, 자가면역간염 등이 있었으나 이들 소견들과 anti-P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. 그리고 검사 시행시점에서 루푸스 정신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.
 - 4) 총 대상 환자들에서 동반된 ENA의 빈도는 anti-Sm 0명, anti-Ro 25명(25.3%), anti-La 11명(11.1%), anti-RNP 28명(28.3%)이었다. anti-P가 양성일 때 동반되는 ENA는 anti-Ro 7명, anti-La 2명, anti-RNP 10명으로 anti-P 양성일 경우 anti-RNP가 가장 흔히 동반되는 ENA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.
 - 5) anti-P가 양성일 때 동반되는 ANA의 type은 cytoplasmic형 3명, homogenous형 2명, peripheral형 3명, speckled형 14명으로 speckled type이 가장 많았다.
- 결론: SLE 환자에서 anti-P의 빈도는 24.2%를 보였고 anti-P와 anti-ds-DNA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C₃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SLEDAI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. anti-P 양성인 루푸스 정신신경학적 증세와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염 및 간염과의 유의한 관련성도 관찰되지 않았다.

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진단 시기와 장기 손상과의 연관성: 한양루푸스코호트

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

정자현*, 배삼철, 오영배, 지중대, 김태환, 전제범, 정성수, 이인홍, 유대현, 김성윤

목적: SLE환자의 진단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미국 류마티스 학회(ACR)의 SLE 분류 기준 적용에 근거하여 내려진다. 연구의 목적은 질병의 첫 증상 및 증후 발현 당시의 임상 양상을 조사하고, 임상적 진단까지 기간과 SLE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장기 손상 지수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에서 1987년부터 1999년 현재 치료중인 한양루푸스코호트 31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면담을 통하여 해당 진단 기준을 조사하고, 각각의 역학적 특성, 즉 첫 발병시점, 임상적 진단 시점, 4가지 이상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시점, 연령, 교육수준, 사회 경제적인 지위 등을 조사하고 SLICC/ACR 손상 지수를 이용하여 장기 손상 정도를 기록하였다.

결과: 임상적 진단 시점에서 진단 기준은 평균 4.08 (± 1.41)개를 만족하였고 첫 증상 발현에서 임상적 진단과 ACR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점까지의 시간 경과에는 각각 평균 2.3 (± 3.3)년, 2.7 (± 3.3)년이었다. 진단까지의 시간 경과에는 첫 증상이 관절염으로 내원시 지연되었으며 반면 신장염과 고열 등의 주소로 내원하였을 때는 진단까지의 시간 경과가 짧았다. 그러나 진단에 따른 시간 경과와 이에 따른 장기 손상의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.

결론: SLE 환자를 적절히 진단,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상으로 관절염, 관절통과 같은 경한 증상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진단 시기와 장기 손상의 연관 관계는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Total SLE, N	F:M	Disease duration, Year(\pm SD)	Age, year (\pm SD) at			SLICC/DI (\pm SD) at		
			Disease onset	Clinical diagnosis	ACR criteria	Clinical Diagnosis	1 year after Diagnosis	5 year after Diagnosis
310	289:21	3.81 (2.7)	28.9 (12.1)	31.2 (11.8)	31.5 (11.8)	0.25 (0.55)	0.25 (0.57)	0.46 (0.9)